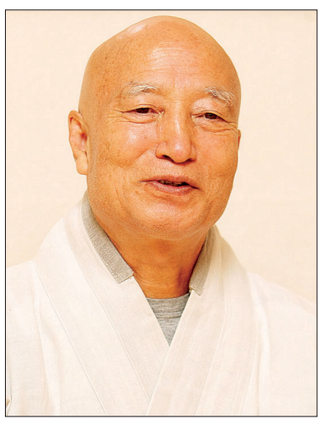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경주가 시작됐다. 투표일이 10월 12일로 예고된 가운데, 본지는 이번 선거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일정, 각 후보들의 종책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해당 기사(A7~A11면)는 각 후보 종책 기자회견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제도 개선 열망↑… 직선제는 무산



설정 스님

信心·願力·公心
새로운 한국불교

선거 전까지의 과정을 톺아보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역대 총무원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열망하는 내부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행 제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있기까지 과정과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35대 선거의 우여곡절

직선제 도입을 바라는 종도들의 관심은 몇 년 전부터 거세게 이어졌다. 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역시 2013년 후보 추대를 받아들이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4대 집행부는 2014년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대덕·혜덕(승납 20년) 이상 스님으로 확대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종회서 '졸속'이라는 의원들의 뭇매를 맞으며 무산됐다. 이후 잠잠했던 직선제 관심은 2015년 시작된 100인 대중공사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던 직선제 도입 논의가 암초를 만난 것은 그해 8월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당시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前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제안한 '염화미소법' 추진을 알렸다. 불과 반년 전, 자승 스님에게 직선제 공약을 지키라고 질타했던 법등 스님이 돌연 염화미소법을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스님은 "시절인연이 직선제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복수의 총무원장 후보자 갈마 이후 종정이 추첨하는 염화미소법은 종책모임 불교광장과 삼화도량이 일정 수준 합의의 뜻을 내비치면서 염화미소법을 다듬을 혁신특위도 구성됐다.

하지만 염화미소법안은 중앙종회가 직선제 논의를 위한 직선제특위를 구성하며 이월됐다. 직선제특위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법계 중덕·정덕(승랍 10년) 이상 스님 1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0.5%가 직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이 역시 이월됐고, 직선제특위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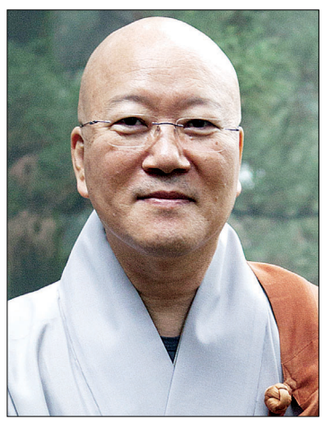
게다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놓고 염화미소법과 직선제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중앙종회는 올해 3월 혁신특위와 직선제특위를 해체하고,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두 안을 모두 이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직선제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불교시민사회계가 구성한 '직선실현 대중공사'였다. 여기에 전국선원수좌회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올해 6월과 9월 종회가 개원되지 않으면서 제도개선특위 회의도 잡히지 않아 종도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한다는 결의 외에 활동이 미비했다. 특위 임기는 내년 연말 만료된다. 결국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제도인 간선제로 치르게 됐다.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행 간선제의 선거인단은 총 321명이다. 중앙종회 81명과 24개 교구별로 선출된 10명 등 240명을 더한 숫자다. 각 교구본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했다. 남은 것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총무원 신원조회와 자격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투표 당일에는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각 후보자별 투·개표 참관인 1인이 배석한다. 투표 후 선거권자 321명의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 시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동표일 경우 승납순·연령순으로 결정한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원로회의가 인준해야 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불 스님

천만 불자시대
다시 열겠습니다

종단 정체성 확립
사부대중의 중심에

"불법행위 발각 시 엄중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



혜총 스님

"과거에는 후보 자격심사만 끝나면 그 뒤는 문제없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불법선거행위가 명백하게 적발된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은 9월 25일 후보 자격심사 직후 본지 인터뷰서 공명정대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각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다하더라도 당선증 교부 연기나 원로회의 인준 보류 요청까지 감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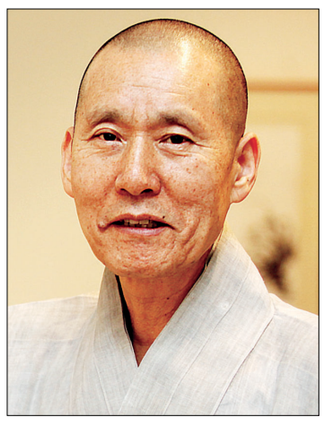
종훈 스님은 "총무원장은 종단을 4년간 책임지는 자리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근간을 이루는 장자종단으로서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선거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하고, 잘 모신다고 대중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치 뜨내기 장터에 있는 장사꾼처럼 4년간 자리만 지킬 목적으로 출마해 혼탁한 선거를 한다면 조계종과 불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금권선거 등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국에 배치된 공명선거위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차원의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24시간 교류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다.

종훈 스님은 "모든 후보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종단 수장이 되고자 출마한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도 선거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의
새로운 황금시대



원학 스님

